

백신·면역치료 발전 논의의 장 열렸다

글로벌 전문가 참여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개막 산업체 포럼·패널 토의·바이오 특화단지 투어 등 잇따라

글로벌 전문가들의 백신·면역치료 발전 방안 논의의 장인 '2024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이 2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백신개발 및 차세대 면역치료 그리고 AI'를 주제로 28일까지 진행된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주최하는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은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았다. 포럼은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특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 6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계기로 기존 학계 중심에서 산업계와의 교류까지 확대돼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미래지향적 백신과 면역치료 기술' 글로벌 전문가 포럼, '백신과 면역치료 기업 혁신 사례' 산업계 전문가 포럼, 백신과 면역치료 발전에 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25일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와 바이오 혁신기관 등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포럼 내용은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 공식 누리집(<https://hiviv.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도는 화순에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 노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중심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20여년간 화순을 바이오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을 들여 지난 6월 화순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

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백신 개발부터 임상과 생산까지 가능한 화순 백신특구의 전주기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업 육성과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바이오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험까지 가능한 공간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에 구축했다. 바이오 기업이 기반시설을 활용하면 면역치료 관련 고가 장비 등을 저비용으로 이용하

고 기업에서 다루기 힘든 임상 분야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백신특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화순 백신특구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와 백신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 기업 유치와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갖춰가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화순이 갖춘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백신·면역치료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업 유치를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청년·주민작가 아트페스티벌 24일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을 찾은 학생들이 거시울 전시장에 마련된 '2024 북구 아트페스티벌'을 관람하고 있다. 지역 청년·주민작가 등이 참여한 북구 아트페스티벌은 '북구, 예술이 된다'라는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김영근 기자

광주시, 오늘 'ESG경영 정책 포럼' 개최

타 지역 사례 등 공유... 中소 실행 방안 등 모색

광주시는 24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이에스지(ESG) 경영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ESG공급망 대응과 지속가능한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타 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경영) 지원 사업,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인,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하며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최정석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장의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지원' ▲봉민수 스마트에코㈜ 연구

원의 '광주시 청정공정 확산사업 수행 사례' ▲오병윤 (주)첨단랩 이사의 '오존 및 미세먼지발생 원인물질 저감 대기오염방지 솔루션' ▲대학생기자단 씨드립의 '기아챔피언스필드 일회용품 감소를 위한 시민 실천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박광수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장을 좌장으로 흉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재현 기업은행 수석 컨설턴트, 조동민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장, 장윤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장, 오병윤 (주)첨단랩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중소기업의 ESG 공급망 대응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헬러윈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강화

市, 오늘부터 전남대 후문 등 5곳 중점관리

광주시는 24일 "헬러윈 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대 후문 등 인파밀집 예상지역 5곳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동구 동명동, 서구 삼우지구, 남구 양림동, 북구 전남대 후문, 광산구 첨단지구 등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5곳을 집중 관리한다.

광주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점검과 현장 예찰활동을 통한 사전예방책, 인파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파밀집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에서는 ▲불법적저물, 쓰레기 등 보행장애물 제거 여부 ▲안내방송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작동 확인 ▲환풍구 등 위험구역 출입통제 조치 ▲보도 깨짐·땅꺼짐·미끄러움·공사중 건물 안전조치 등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현장을 순찰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치구·경찰·소방과 재난대책반을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비상통신망을 상시 유지하며, 유사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파 밀집상황과 행동요령을 즉시 전

파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호 안전정책관은 "인파 밀집 때는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며 "광주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지역기업 대상 '광주 라이즈 설명회'

광주시는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대대학교육혁신센터(광주RIS E센터)와 함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설명회'를 열었다.

'라이즈 설명회'는 2025년 라이즈(RISE)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기업의 참여와 대학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헬스케어·정보통신 기업과 광주 성장사다리 기업 등 지역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라이즈 체계와 세부사업 설명,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라이즈 계획에 광주 창업밸리 초기창업기업 아카데미, 기업 개방형 혁신 연구실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체계를 다듬을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준비 '착착'

준비상황보고회서 안전·교통·숙박 등 운영 전반 점검

전남도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년 4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제1차 집행부 준비상황보고회를 열어 종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 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목포시, 전남체육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교통·주차 대책, 숙박·식품 등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준비상황부터

대회 운영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12세 이하부터 대학부와 일반부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모든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대축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회식과 폐회식은 전남의 문화·역사를 대 표할 상징적 콘텐츠를 활용하고 예술적 연출을 통해 전남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58개 모든 경기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11월부터 2회 진행한다. 12개 시·군 16개 경기장의 소방시설 정비, 트랙 보수 등 개보수를 진행해 선수와 관람객 진화 환경을 만들기 로 했다.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소년(장애 학생)체전 성공 개최 주역인 자원봉사단 1천명과 도민응원단 5천명도 모집한다. 이들은 환경 개선, 친절운동, 방문객 안내 등 경기 내외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전남도는 차후 대회 준비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모든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진정한 의미의 전국체전 성공 개최가 될 것"이라며 "3개년 종합 스포츠대회의 마지막 대미인 내년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25년 4월24-27일 4일간 전남 일대에서 열린다. 전국 2만여 생활체육인이 참가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